

6. (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는 소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소비는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기업에 지지 혹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착한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윤리 경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바람직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text-align: center;"> A </div> </div>

- ① 소비가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② 동물을 착취하여 생산된 상품의 구매를 거부해야 합니다.
- ③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 ④ 경제적 효율을 소비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 상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 정의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이 배제된 가상적 상황에서 합의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 허용될 수 있다. 을: 소유 권리론의 입장에서 볼 때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A에 B에 C에 </div>

< 보 기 >

ㄱ. A: 분배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는가?
 ㄴ. B: 최소 수혜자의 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과세는 부당인가?
 ㄷ. B: 분배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타고난 우연성을 배제해야 하는가?
 ㄹ. C: 최소 국가를 넘어선 복지 국가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다음 대화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윤리학은 도덕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의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1 갑 을	2 갑 을
아닙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보다 도덕적 관습이나 풍습 등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윤리학이 ㉠
3 갑 을	4 갑 을

- ① 특정 사회의 도덕적 관습을 서술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② 도덕규범의 정립과 정당화를 강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③ 도덕 원리를 현실의 도덕 문제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④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⑤ 윤리적 쟁점에 대한 해법 모색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법칙의 준수는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인 A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친구와 운동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더 자고 싶어진 A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약속을 어겼을 때 받을 비난을 고려해 판단하세요.
- ② 약속을 지켰을 때 얻어질 결과를 계산해 행동하세요.
- ③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 법칙을 존중해 행위하세요.
- ④ 약속을 지켰을 때 사회적 쾌락이 증진됨을 고려하세요.
- ⑤ 약속을 어겼을 때 친구가 느낄 감정을 헤아려 행동하세요.

1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각 재료가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맛을 내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하여 동화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문화적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 ㉠ ’는 점을 간과한다고 본다.

- ① 서로 다른 문화들은 대등한 자격으로 공존해야 한다.
- ② 단일한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 ③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이질적인 문화들을 융합해야 한다.
- ④ 사회 발전을 위해 특정 문화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⑤ 다양한 문화 간에 우열을 가려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예술에서 선한 의도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형편없는 예술은 모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잃게 한다. 예술의 목적은 오직 예술 그 자체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을: 예술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일종이다. 예술가는 고결한 품성과 올바른 행위를 표현해야 한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 작품이 갖는 선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언제나 고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보기 >

ㄱ. 갑은 예술이 도덕과 분리되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예술이 올바른 인격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예술에서 도덕적 평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예술이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우대 정책은 과거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자의 불평등한 상황을 보상하므로 정당하다. 이러한 정책은 차별받아 온 소수자에게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해 공공선 증진에 도움이 된다.

(나) 우대 정책은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후손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므로 부당하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자에게 노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가)는 ㉠ **우대 정책으로 그동안 차별받아 온 소수자의 고통을 보상해야 한다고 보며**, ㉡ **우대 정책이 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나)는 ㉢ **우대 정책은 일반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하여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보며**, ㉣ **우대 정책이 개인의 성취를 무시함으로써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우대 정책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는 무(無)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며 이전까지 존재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공동 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특정 개인의 소유물로만 취급된다면 인류의 공동 자산이 상품화되고, 결과적으로 소수만이 정보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정보는 인류의 집단적 경험과 기억, 학습이 축적되어 있는 보편적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① 정보는 협업의 산물이므로 누구에게나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는 정보의 생산 활동을 저해시킨다.
 ③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양질의 정보 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④ 정보 공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보 생산을 위축시킨다.
 ⑤ 정보 소유권 보장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

14.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으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범에게 적용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습니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형이 큰 인상을 남기더라도 급속한 망각의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 ①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가?
 ② 형벌은 시민에게 끼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가?
 ③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 형벌인가?
 ④ 사형은 살인범에게 응분의 책임만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당인가?
 ⑤ 사형은 살인범에게 가해질 인격의 훼손을 막는 정당한 형벌인가?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가 추구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지혜는 살아 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나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코 순수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 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 ① 갑: 인간에게 죽음은 회피해야 할 고통이다.
 ② 갑: 죽음은 영혼이 소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③ 을: 죽음 이후에는 인간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게 된다.
 ④ 을: 삶을 긍정함으로써 내세에서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갑, 을: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필연적 윤회의 과정이다.

